

'문화누리카드 서둘러 사용하세요'

올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 안돼 자동 소멸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2020년도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가한 내 사용에 달라고 당부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오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하지 않는 카드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이용은 도서, 숙박, 고속버스, 철도부터 문화 강좌, 체육시설까지 등록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비대면 문화생활 권장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전자주문 상품 카탈로그와 전라북도 가맹점 종합안내지는 도내 지역 243개 행정복지센터에



문화누리카드 포스터 캡처

비치했으며, 전북문화누리 블로그(blog.naver.com/jct0419)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신규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도내 외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전라북도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가맹점과 잔액 조회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및 농협 카드 고객센터(1644-4000)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만 6세 이상) 10만3,240명에게 연간 9만 원의 '문화누리카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했으며, 2021년에는 1인당 1만 원이 인상된 10만 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문화관광팀(064-230-746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종교와 영성, 그리고 사회적 치유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종교학회 50주년 학술대회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종교문제연구소는 최근 한국종교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종교학회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원광대 세미나실에서 ZOOM 화상회의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연구재단 후원 아래 '종교와 영성, 사회적 치유'를 주제로 열렸으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 상황에서 종교영성에 대한 고찰과 함께 사회적 치유로서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담론을 담고, 국제사회와 한국에 내재한 사회의 병적 현상뿐만 아니라 역사적 상흔까지도 다양하게 조명해 성찰적 종교와 치유의 길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졌다.

전체 주제에 관한 기초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 첫날 기초발표에 나선 김경재(한신대) 명예교수는 '종교와 영성, 그 치유의 길'을 주제로 참된 영성적 사람들이 지나는 라이프 스타일을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종교인들 스스로가 더욱 성숙한 영성적 존재가 되는 길, 삶과 수행이 일치되는 길을 제안했다.

이어 한국종교학회장 박광수(원광대) 교수는 코로나19 시대의 병적 현상에 대해 종교 전반에 걸쳐 살펴보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공공성(公共性) 담론의 중요성을 제시했으며, 김동춘(성공회대) 교수는 국가폭력과 한국사회의 트라우마를 주제로 분단과 전쟁의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 증상의 의학적 사실을 넘어 사회적 사실로 되고, 과거청산이 법적인 처리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의제가 되어야 할 필요성과 종교의 역할에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는 최근 한국종교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종교학회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대해 살폈다.

마지막 기초발표자인 최중성(서울대) 교수는 동학의 초기 기록인 '회상영적실기'에서 진정한 인간 즉 자기 진정성을 모색하는 동학적 영성의 모본을 살폈으며, 기초발표 후 종합토론은 유기쁨(서울대) 교수와 원영상(원광대) 교수의 논평과 온라인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한편, 둘째 날은 분과별로 ZOOM 화상회의를 통해 발표가 진행된 가운데 한국종교, 종교이론 및 대학원, 유대교 및 이슬람, 종교와 과학, 불교, 유교, 일본종교, 종교평화학, 신종교, 종교사회학, 종교와 예술 등 11개 분과에서 소장 학자들을 중심으로 40여 명의 발표자가 다양한 종교학 연구의 담론과 토론을 펼쳤다.

/익산=장양원 기자

'시(詩)로 물드는 무주사계'

문인협회 무주지부 회원들

창작작품 태권도박물관서 전시

무주 태권도원에 위치한 국립 태권도박물관 소전시장은 한국문인협회 무주지부(회장 이명희) 소속 회원들이 열정을 갖고 완성한 시화전이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전시는 아름다운 무주의 사계절을 문학적 감수성으로 진솔하게 표현한 작품들로 한국문인협회 무주지부 회원들의 창작시(詩)다. 무주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국립 태권도박물관이 한국문인협회 무주지부와 소통하면서 이번 전시회가 성사됐다.

이번 태권도박물관 소전시장에 소개된 전시회에는 한국문인협회 무주지부 소속 회원 22명이 참여했다. 작가들이 주옥같이 써 내려간 작품 속에서는 무주의 멋과 계절의 풍경, 꽃 소래로 한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어 무주의 자긍심이 잔뜩 배어있다.

이연희 회원은 '가을 적상산에서는' '된서리 내린 아침, 서로 몸 부너 온기를 나누는 이파리들, 초록을 추억하는 지 허공까지 소란하다'고 시구 초미에 소개, 조선의 숨결이 머물고 있는 적상산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이밖에 서영숙 회원이 출품한 '반디천문대'를 작품을 통해 "몰빛 하늘바다를 펼치면 한 쪽 눈 감아도 다 보인다"는 표현으로 무주의 자랑인 반디천문대를 소개하는 과감성을 보였다.

이현정 회원은 '가을산' 제목의 시를 통해 "아름다운 빛깔의 가을, 그리고 산, 별 빛같은 파스함으로 노래하네" 무주의 명품 가을산들의 자태를 진솔하게 적었다.

한국문인협회 무주지부 이명희 회장은 "태권도의 성지 태권도원이 자리한 박물관에서 회원들의 진솔하고 감명있게 소개한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게 돼 더 없이 보람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태권도박물관에서 전시 장소를 마련해 줘 감사하다"고 박물관측에 감사함을 전했다. 전시회에 작품을 선보인 회원들도 "그동안 틈틈이 작품활동을 해 왔는데 관람객들이 많이 찾은 태권도박물관에서 작품을 전시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태권도박물관 김정연 주임은 "한국문인협회 무주지부 소속 회원들의 수준높은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돼 감격스럽다"면서 "한지로 작품을 만들고 족자형 전시에 표구로 만들었다"고 이번 전시에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

이어 "마음을 담아 써 내려간 시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서로에게 응원의 말을 전하는 의미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내년 2월까지 진행되며, 아울러 무주 사진기회회에서 회원들이 참여한 사진작품들도 전시하고 있어 글과 사진을 접목하면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전문선기자

순창군립도서관-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 '길위의 인문학' 성료

순창군립도서관이 지난 4일 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주관한 '2020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올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강연 6회, 탐방 3회, 후속 모임 1회 등을 진행했다. 순창군립도서관은 당초 8월 2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10월 16일부터 시작해 지난 4일 마무리했다.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의 후예와 함께 정의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우리 고장 법륜가 권정호, 이진우, 한동영, 정준호, 조현욱, 박희승 변호사를 초청, 순창의 대표적 인물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삶과 사상, 법의 눈으로 본 세

상의 특별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인문학 기간동안 토요일에 3차례의 답사를 진행했다. 신영호 순창군문화관광해설사와 장교철 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 소장이 가인 선생 생가와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 북흥과 담양, 고창 등을 안내하면서 가인 선생의 발자취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조순엽씨는 "순창의 대표적 인물인 가인 선생의 정신과 사상을 새롭게 알게 됐다"며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마이산 선경



진안홍삼스파



부귀 메타세콰이아 길



구봉산 구름다리

진안은 여행도 영화가 됩니다

진안고원의 겨울이야기를 가족과 함께 만들어보세요.





